교인 가로채기

(막12:1-12)

1.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2.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6.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9.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0.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교인 가로채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교인 가로채기'

이 말을 우리가 듣자마자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의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뜻에 근거를 두어서 제목을 '교인 가로채기'라고 정했는데, 이것은 선민의 지도자층이 선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로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교인 가로채기'를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멀리 친척관계에 있는 분이라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본사가 있고 만드는 물건들을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데 제일 큰 교역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30년이 넘도록 미국에 지사를 두고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바로 그 지사에서 일하고 있던, 당시는 결혼한 지 1, 2년밖에 안 된 그런 젊은 시절에 그 집사님과 함께 만났었죠.
30년이 넘게 미국지사가 있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지사에서 책임을 지고 일하던 책임자가 계셨습니다.
회사 내에서 직책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장님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큰일을 겪게 되는데, 이제는 40대 후반이 되었으니까 그리 젊지도 않죠.
그 미국지사장으로 30년 동안 일하던 분이 본사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30년 동안 본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던 미국 내의 모든 거래처들을 다 끊어서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가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종류의 다른 회사의 상품들을 자기가 중개인이 되어서 수입해서 거래처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겁니다, 본사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본사로서는 기가 막힐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동안 무얼 모색한 겁니까?
이제까지는 자기가 미국 내의 거래처들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미국 내의 거래처가 자기의 생활기반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활기반은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거래처는 자기 것이 아니라 본사가 관리하는 거래처인데, 자기에게 책임을 맡

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거래처를 자기의 직접적인 생활기반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기는 그것을 관리했을 뿐이고 내 생활기반은 본사였는데(이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생활기반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본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무서운 배반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 선민사회의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했다는 얘깁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이야기를 하시고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이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가서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나온 이익금 중에 얼마를 보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을 온 주인의 종들을 다 죽여 버립니다.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뒤에 마지막으로 아들인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이제 죽여 버릴 것입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을 갈취해버린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와서 시비조로 따져 물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도원을 갈취한다는 겁니다.
포도원과 주인 사이에서 주인의 명을 받고 포도원을 잘 관리했던 사람들인데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주인과 포도원의 관계를 끊고 중간으로 끼어들어서 포도원을 갈취해버립니다.

이들의 문제,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일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했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먹고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사회를 잘 이끌어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고살도록 삶을 다 허락하시고 인도해주실 것이었습니다.
미국지사에 있던 그 책임자의 경우처럼 본사에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본사가 내 생활터전이 되는 겁니다, 나는 미국의 판매처를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백성들이라는 포도원을(선민들의 사회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선민들의 사회를 자기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자기 생활터전으로 삼아버립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과 보람과 존경과 명예의 source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삶의 터전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선민사회로부터 끄집어내려고 선민사회를 자기 것으로 사유화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사회내의 조직의 생리를 이용해서 다 자기에게로 집중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선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정성어린 헌금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을 내용적으로 다 자기들에게로 향하도록 바꿔버렸다는 얘깁니다.
성전정화사건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왜 양이나 비둘기 등의 제사물이 온전한가를 검사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가 갖고 있고 키우고 있는 양 중에서 가장 온전하고 토실토실한 것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정성을 점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정성 시스템의 내용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것은 불합격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키운 양들을 장사꾼들에게 팔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장사꾼들에게 산 양들은 무조건 합격을 시켜버립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에요.
생활터전을 선민사회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인생을 이끄신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고, 직접 선민사회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선민사회를 끌어당기고 자기의 생활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선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제사장을 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 놓은 거예요.
선민들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들이 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 무서운 범죄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끊어버린 것이고, 선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어지도록 도와야 하잖아요, 미국지사의 책임자가 미국의 거래처와 본사가 연결되도록 돕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버렸고 믿음을 끊어버렸고, 내가 직접 선민들로부터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도록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 선민들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도 끊어버렸습니다.

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이 여러분, 옳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교회, local church를 말합니다.
'그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삶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기도하는 장로님은 예쁜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말씀을 그대로 놓고 볼 때, 지역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교회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중심이라는 말도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세상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지역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개개인 교인의 마음이 결합하도록 돕는 게 지역교회에요.
그런데 '교회 중심, 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본의 아니게 오용되고 남용되고,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 교회를 가만 보면 조직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있고, 그 위에 세례교인이 있고, 그 위에 집사 구역장 권찰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있고, 그리고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어서 당회가 형성됩니다.
어느 목사님도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생각해서 당회장 자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어느 장로님들도 그것이 마치 국회의결기관처럼 상부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마는, 다 교회를 섬기겠다는 말로 나 자신을 가다듬고 있지마는, 조직의 생리 자체가 하부구조의 사람들은 상부구조의 존속과 유지와 강화를 위해 필요하게끔 되어있어서, 이미 그렇게 조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충성과 봉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결국은 이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미 목사님은 조직의 위에서 조직의 정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위하여 교인들이 충성 봉사할 때는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목사님이 그걸 원하지 않더라도 조직의 생리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교인들의 영적인 에너지가 다 교회조직을 유지하는 데에 소모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합니다.
여전도회장들은 더 이상 믿음생활이 아니에요.

교회의 조직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위하여 모든 spiritual 에너지가 소모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디에 쓰여 졌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에너지가 발산되어야 되는 그런 과녁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식 앞에서 어떻게 내가 제로가 되느냐? 자식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소원과 욕심이 제로 되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으니까, 자식 앞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제로가 되느냐? 그래야 직장 속에 있는 내가 직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장이라는 현장에 나타나실 수 있으니까.
이것에 온 힘을 뜻을 다 기울여서 싸워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모든 에너지가 다 투입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 하나님과 개개 교인들이 결속할 수 있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곳입니다.
그걸 기호로 (0,1)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제로가 되어야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0,1)으로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결속하는 일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며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할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이 프로그램이고 직장이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제로 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서 직장이라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자식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제로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켜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켜지고 나는 꺼지고(off) 하나님 스위치가 on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하나로 결속을 다지는 일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일만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돈이 그렇게 몇 백억, 몇 천억씩 들어가지 않아요.
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만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예배당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싼 예배당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왜 그렇게 많은 돈이 교회 자체 내에서 다 소모되어버리고 맙니까?
목사님을, 장로님을, 그 조직의 상부구조를 위해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런 생각이 없더라도 그 조직 자체가 생리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라미드의 상부구조를 위해서 일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로채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교인들이 지역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결속을 다 상실해버리고 교회라는 조직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괜찮은 걸로 돼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됨을 실시하고 유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자들이,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제로원(0,1)으로 묶인 자들, 그들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잖아요, 직장에 가정에 학교에 가정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 자체가.
local church는 그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그 교제하는 목적도 뭡니까? 제로원(0,1)이라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화시켜주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이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조직의 생리 자체가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를 위한 것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부구조에 있는 자들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왜 나왔습니까?
각 교인을 하나님과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결속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됩니다.
내가 엄마지만 자식 앞에서, 남편 앞에서 제로 되고, 그래서 남편과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갖가지가 있는 이유는 결국 교회를 하나님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 우리는 이 우(愚)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처럼.

중간에서 포도원을 가로채는 자, 미국지사 책임자로서 미국의 모든 거래처를 자기 것으로 삼는 자, 내 삶의 터전으로 삼아 내 인생의 성공 보람,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공급처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교인 가로채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교인들을 가로채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먹고사는 일은 하늘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교인들의 집단이 목사님 장로님들의 삶의 터전이나 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source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결속을 이루는 것 이상의 것을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